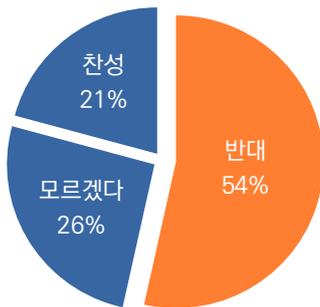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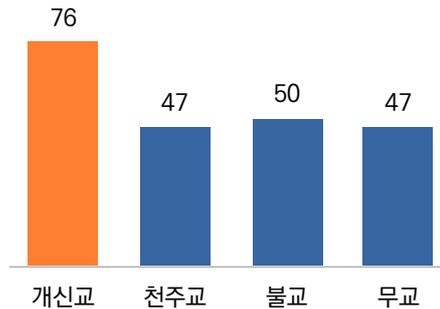
개신교인 4명 중 3명, 퀴어 축제 반대!

- ▶ 제24회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7월 1일부터 을지로 일대에서 진행되는데, 이를 앞두고 최근 국민 인식 조사 결과(한국 리서치)가 발표되었다. 퀴어 축제 개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, '찬성' 21%, '반대' 54%, '모르겠다' 26%로 나타나 국민 전체적으로 퀴어축제 반대 의견이 절반 이상 높게 나타났다.
- ▶ 종교별로 살펴보면 개신교 신자의 '퀴어 축제 반대' 의견이 76%로 압도적으로 높았고, 그 외에 '불교인' 50%, '천주교인' 47%로 비슷하게 응답됐다.

[그림] 퀴어 축제 개최 찬반 의견



[그림] 종교별 퀴어 축제 반대 비율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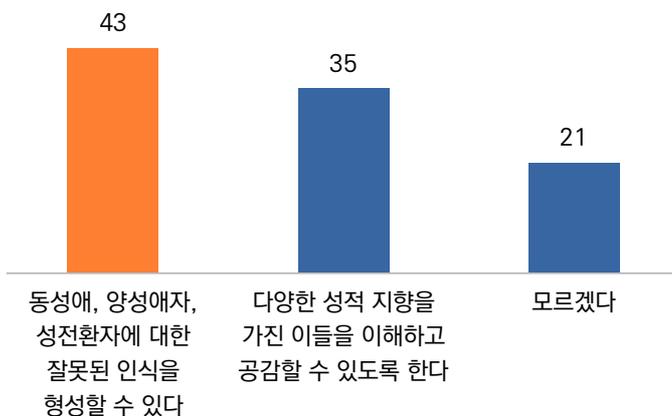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, 퀴어 축제 여론 및 퀴어 콘텐츠에 대한 인식, 2023.06.21.(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3.06.09.-06.12)

◎ 퀴어 관련 콘텐츠, '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' 43%

- ▶ 퀴어 관련 콘텐츠(예능, 드라마, 영화, 연극, 뮤지컬, 도서 등)에 대한 긍정적, 부정적 진술문을 하나씩 제시하고 더 가까운 쪽을 선택하도록 했다. 그 결과, '동성애, 양성애자, 성전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'고 응답한 비율이 43%로 나타나 부정적 평가가 높은 편이었다. 다만 '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'도 35%로 나타나 3명 중 1명 정도는 '퀴어 콘텐츠에 공감하는 입장'을 보인 점이 눈에 띈다.

[그림] 퀴어 관련 콘텐츠 인식 (%)

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, 퀴어 축제 여론 및 퀴어 콘텐츠에 대한 인식, 2023.06.21.(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3.06.09.-06.12)